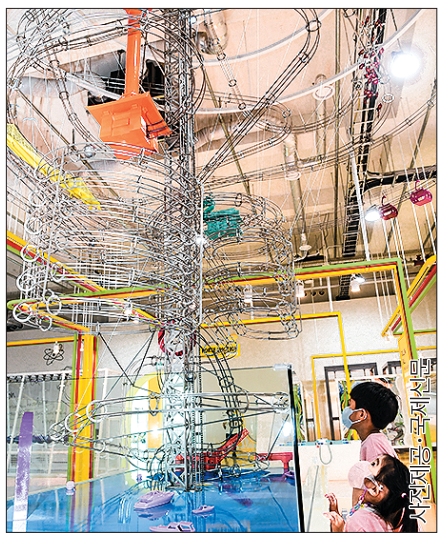
‘과학 놀이터’서 창의력·사고력 ‘쑥쑥’

국립부산과학관, 어린이과학관·기획 전시 열어

국립부산과학관이 신규 체험 공간과 다채로운 체험 전시를 열며 부산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최고의 복합과학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놀이의 탐구’에서는 신체활동부터 기술을 활용한 게임까지 다양한 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어린이과학관’ 전시를 관람하고 있는 모습.

■과학으로 세상 보는 놀이 공간

놀이형 과학체험 문화공간 ‘어린이과학관’이 부산과학관 내에 지난 6월 16일 문을 열었다.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3층 등 총 4개 층 규모이다.

1층은 로봇팔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는 ‘순회전시실’로 꾸몄다. 2층은 놀이를 통해 과학에 가까워지는 공간이다. 거미줄 놀이터, 미로 탈출, 블록과 공을 이용한 놀이 등을 하며 과학 원리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했다. 3층은 ‘힘과 운동’ 등 기초과학부터 로봇·AI(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까지 과학 원리를 알아볼 수 있는 공간이다. ‘지구를 지켜요’ 코너를 마련해 환경 보호 이슈도 챙겼다.

입장료는 1인 2천 원, 3세 미만은 무료. 부산과학관 온라인매표소(ticket.sciport.or.kr)에서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즐거운 추억 남기는 향기 여행

기획전 ‘향기의 재발견’은 8월 28일까지 1층 소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전시는 향기를 맡는 후각인지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 알아보고 향기의 역사에서부터 관련 산업·예술 등 다방면에서 향이 주는 매력을 느껴보는 융합체험전시이다. 여러 가지 향기를 직접 맡아볼 수 있다는 점이 전시의 특징이다. 머스크·시나몬·오렌지 등 직접 시향을 하며 마음에 드는 향도 찾아볼 수 있다. 전시는 누구나 무료로 방문할 수 있으며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운영한다.

■‘노는 것이 공부다’

특별전시 ‘놀이의 탐구’는 11월 27일까지 1층 김진재홀에서 진행한다. 전시는 유아기부터 노년기로 이어지는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놀이’가 필수인 점에 착안해 기획했다. 막대기·주사위 등 간단한 도구를 이용했던 전통놀이부터 AR(증강현실)·VR(가상현실)·메타버스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전시로 구성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놀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다. 입장료는 성인·청소년 5천 원, 어린이 2천 원. 온라인매표소에서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알차고 신나는 여름방학 보내려면 여기 어때요?



여름방학이 다가온다. 방학 동안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전시·공연을 소개한다.

방탄소년단 보고 간 전시

부산시립미술관은 ‘한국현대미술작가조명Ⅳ-이형구’전을 2층 전시실에서 8월 7일까지 개최한다. ‘몸’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작품 100여 점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전시는 시립미술관을 여러 번 찾았던 방탄소년단의 RM(랩몬스터)이 관람해 화제가 됐다. RM은 도날드 덕 등 만화 캐릭터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한 동물 뼈 형상의 작품 ‘아니마투스(Animatus)’ 시리즈 인증샷을 개인 SNS에 남겼다. 전시는 오전 10시~오후 6시 운영. 매주 월요일 휴관. 시립미술관 홈페이지(art.busan.go.kr) 참고.



신기한 마술 세계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마술 공연을 펼치는 ‘매직오브아트’는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8월 13일 토요일 열린다. 공연은 오전 11시·오후 2시·4시 3회 진행한다. 화려한 조명과 음악을 배경으로 마술사가 펼치는 60분의 공연은 다채로운 마술로 꽉 채운다. 마술쇼에 희망 가득한 스토리까지 더해 관객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관객은 공연 중에 무대 위에 올라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입장료는 모든 좌석 2만 원. 예매는 네이버 예약(booking.naver.com)에서 할 수 있다.



협동과 유비무환의 지혜

가족 뮤지컬 ‘아기돼지 삼형제’는 부산문화회관에서 8월 28일까지 열린다. 뮤지컬은 동명의 세계명작을 각색했다. 튼튼한 벽돌집을 짓고 함께 힘을 모아 늑대의 공격을 이겨낸 아기돼지 형제의 성실함과 협동의 지혜를 가르쳐준다. 뮤지컬은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와 재미있는 율동, 여러 가지 변화를 주는 무대세트,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가 어우러져 관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입장료는 모든 좌석 2만 원. 만 2세 이상 관람 가능.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bscc.or.kr) 참고.



미술관 마당서 철새랑 뛰놀자

미술관 야외공원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자연환경 보호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부산현대미술관은 야외 파빌리온 프로젝트 ‘Re : 새-새-정글’전을 미술관 야외공원에서 10월 23일까지 개최한다. 작품은 을숙도에 찾아오는 철새 ‘쇠백로’에서 모티브를 얻어 폐플라스틱 27톤을 조립·제작했다. 모든 자재는 전시 이후 실용품으로 다시 만들 수 있게 메뉴얼을 만들고 재생 플라스틱을 이용한 가구 제작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현대미술관 홈페이지(busan.go.kr/moca) 참고.

